

업무 불협화음... 부 읍·면장 꼭 필요하나

전남 장흥·무안·강진·구례·영광 등 5개 군 직제 운영 총무 담당이 겸임, 같은 직급 계장들과 마찰 존재 논란

지역 일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부 읍·면장 직제'를 두고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전남 지역 17개 군 가운데 현재 장흥과 무안, 강진, 구례, 영광 등 5개 군이 부 읍·면장 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 읍·면장 직제는 지난 1998년 IMF사태 이후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이유로 폐지됐다가 2005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일부

지자체들이 도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읍과 면의 총무담당(6급)이 부 읍·면장 자리를 겸임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단체장 결석 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도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과는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읍·면장과 부 읍·면장간에 불협화음의 소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같은 직제에 있는 계장 요원들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무원행에 역기능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별도로 부 읍·면장 직제가 있어 독립적 업무수행 기능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현재 운영되는 직제는 '부'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 다른 계장 요원과 직급이 같고 다루는 본연의 업무는 동일해 상징적인 겸임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읍·면장이 계장 요원들에 대한 사무분장 권한을 행사하는 규정상 단체장(군수)으로 부터 겸임발령을 받은 이들(부 읍·면장)에게는 사무분장을 할 수 없는 모순이 있어 일사불란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장흥군 A면의 경우 해당 면장이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총무와 주민복지, 맞춤형복지, 산업, 재무담당 등 5개 자리 계장 요원들에 대한 순환 사무분장을 하

려다 부면장을 겸임하고 있는 총무담당으로 인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흥군 인사관계자는 "현행 부 읍·면장 제도는 읍·면장을 보좌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동시에 읍·면장의 횡포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읍·면장과 부 읍·면장간은 물론 다른 계장 요원들과의 갈등 요소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지자체의 임의적 판단으로 운영하는 겸임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1998년 이전과 같이 별도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직제를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총무취재본부장 kykim@



관광객들이 오감통 전남음악창작소 1층 라디오 스튜디오 앞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운영되는 '라디오 강진'을 듣고 있다. <강진군 제공>

'라디오 강진' 봄맞이 프로그램 개편

지역민 참여 대폭 확대...도암에 2호점 오픈도

'라디오 강진'이 봄 개편을 맞아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단장해 청취자들에게 새롭게 다가간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음악으로 하나 되는 하모니 강진 만들기' 공무사업인 라디오 강진은 오감통 전남음악창작소 1층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지역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대표 코너인 '우리 소리를 찾아서'는 지역 소리꾼을 초청해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고, 강진 향토음악의 배경설화와 전설을 재미있게 풀어주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강진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박재완 여행작가의 '박이정의 강진 나들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꾸미는 '우리동네 스타'도 계속 이어간다.

초청 가수 공연도 더욱 새로워진다. 매월 둘째 주 유명 가수를 초청해 직접 라

이브 공연을 볼 수 있는 '생생콘서트'에 음악창작소가 발굴한 뮤지션 소개 코너가 신설돼 신인 뮤지션의 등용문 오감통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매월 넷째 주에는 강진음악인연합회 소속 가수들이 관광객들과 라이브 공연을 함께 한다. 라디오 강진 개편에 따른 홍보도 대폭 확대한다. 방문객들이 식사를 하며 라디오 강진 방송을 자연스럽게 청취할 수 있도록 오감통 먹거리타운 식당가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또 이달 중 도암에 라디오 강진 2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2호점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DJ아카데미' 수료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한편 2016년 8월 개국한 라디오 강진은 음악도시 강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역 음악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참여와 소통의 매개로 자리매김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

영암군 3년 연속 우수기관

영암군이 '2017년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이다.

영암군은 최근 환경부에서 실시한 '2017년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와 함께 포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수장 시설관리와 수질관리 등 3개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지 확인평가와 지자체의 개선 노력과 정책수행도 등을 반영했다. 군은 수도인력 전문성 확보와 주민서비스 활동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영암=전봉현기자 jbh@



대보름 맞이 장흥읍성 밝기 지난 2일 장흥군 장흥읍 탐진강변에서 열린 대보름을 맞이 장흥읍성 밝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폐비정에 올라 읍성다지기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장흥읍이 주최하고 장흥읍민영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역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 장흥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장흥군 제공>

영암군 학교 급식소

신학기 식중독 예방활동

영암군이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활동을 벌인다.

영암군은 오는 12일까지 관내 학교 급식소 33개소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 5개소 등 총 38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전남도교육청과 도·시·군 관계자, 소비자감시원 등이 함께 참여해 5개 반으로 꾸려진다.

학교의 경우 식재료 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위생적 취급 기준 등을 점검한다. 이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한 반복 또는 상습적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영암=전봉현기자 jbh@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내일부터 5일간 선수 800여명 참가

3·1절을 기념하는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강진군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을 닦은 800여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해 열띤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을 포함해 읍성군청 사이클팀과 가평고등학교 사이클팀 등 지난해부터 강진에서 전지

훈련을 했던 전국 35개 팀 210명도 참가할 예정이다.

선수들은 강진종합운동장 앞을 출발해 158km에 이르는 개인 도로경기 두 번과 넷째 날 강진 성전산업단지에서 실시하는 크리테리움 경기까지 총 세 차례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비교적 짧은 1.7km를 20회 총 34km를 왕복하는 크리테리움 경기는 종목의

특성상 평균 주행 속도가 시속이 50km 이상을 유지해 어떤 다른 경기보다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로 인기 종목이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530명이 참가하는 1부 스페셜리그 78km, 2부 DMZ리그 52km를 경향한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대회가 치러지는 구간을 점검해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고 청소를 실시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세 얼 굴

"미래역량 육성 교육과정 내실화 노력"

백인기 장흥교육장



"문림의향의 얼을 이어 나가는 장흥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일 장흥교육지원청장에 부임한 백인기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 기초 기분을 중시하는 교육 활동을 펴겠다"며 "모든 학생이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미래 산업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 교육장은 장흥 출신으로 광주교대와 한국 교원 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수료했다. 1980년 초등 교사로 교직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화순초등학교 교감,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등을 역임했다.

/장흥=김용기기자·총무취재본부장

투자 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 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 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평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